

예배안내

주일1부예배	9 AM	아가페홀
주일2부예배	10:45 AM	본당 & 라이브
중고등부	11 AM	아가페홀
주일학교	11 AM	본당 지하
화요소망학교	11 AM	본당 지하
수요예배	7 PM	본당
AWANA (수)	7 PM	아가페홀
새벽예배 (화-토)	6 AM	본당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직 목사
방송/교육	오정훈 목사
소망학교	이신웅 전도사
청년부	청빙중
찬양/중고등부	문강한 전도사
주일학교	김성은 사모
시무장로	윤순기
휴무장로	백형수
은퇴장로	김대희 임병갑 백근조 이덕홍 이창진 윤순화 오귀록
협동장로	전세환
지휘자/서무	박은실
찬양인도	공석우 류충환 문강한
반주자	노윤실 사모 김성은 사모 김은화 이화니
번역/통역	김예람 이화니 박정효 이윤희 김혜연 원영철
방송	조준한 DANIEL SEWELL 조희수

열방을 섬기는 이들

중국	이주애	NIM 북한 선교회	임현석 (교회 후원)
케냐	이영규	아파치인디안	강원용
칠레	황신재	키르키즈스탄	바나바/다비다
모로코	김영목	아이오와 다민족	서정호 (교회 후원)
요르단	설총호/전경원	CHEROKEE	(교회 후원)
도미니카	이광호	CHILDREN MISSION	



주 일 예배

경배와 찬양 찬양팀 (15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 기원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신양고백 사도신경

성시교독 교독문 36번 시편 Psalm 90편

참회의 기도 벤후 2 Peter 3:9

찬송 찬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기도 백형수 장로

광고 인도자 / 김성직 목사

봉헌, 봉헌찬송 찬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봉헌기도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성경봉독 열왕기상 1 Kings 19:1~12

말씀 우리들의 리더쉽 (3):주가 거느리시네!

Our Leadership (3): He Leadeth Me!

*결단의 찬양 지금 이 자리에서

* 축도 김성직 목사

* STAND UP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롬 8:14-16).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는 뜻이다.

바울은 두 가지 영, 즉 '종의 영'인 두려움과, '양자의 영'인 사랑에 대해서 말한다. 두려움으로 역사하는 '종의 영'은 심판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사랑의 영'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품으로 달려가서 그분의 자녀처럼 행동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사랑 안에서 성도들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함을 느낀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증거'는, 영적 속삭임이나 즉각적인 계시가 아니다. 이것은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의 거룩한 역사의 결과'이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롬 8:13).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한다고 말한 것은, 각각 다른 두 개의 독립적인 증거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증거를 받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은 성령이 우리 안에 만들어 내는 양자됨의 증거를 보고 선언한다는 뜻이다. 우리 영은 성경에 '마음(요일 3:19-21)' 또는 '양심(고후 1:12)'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우리의 한 부분이다.

성령의 증거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선택하셨다는 것, 또는 하나님의 목소리나 선언으로 잘못 이해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가? 또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거짓 감정들이 발생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속아서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다. 이 때문에 나는 많은 부분을 이 장에 할애하는 것이다.

제3부 진정한 영적 감정을 분별하는 방법!

18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청교도 개혁주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을 한 권 나눕니다. 물론 이 역시 완벽한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 안에서도 올바른 믿음과 대각성이 주 안에서 꼭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그렇듯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영에 속한 감정

- 성령의 증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성령의 증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롬 8:16).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즉각적인 계시가 바로 성령의 증거라고 생각 한다. 그들은 하나님아이 아버지가 되셨음을 확신시켜 주는 은밀한 음성이나 감동을 내면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증거'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아이 증거하신다고 말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실을 긍정하고 나서거나 또는 그 사실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좀 더 신중하게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증거하다 (bearing witness or testifying)'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종종 '어떤 것을 사실이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를 제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나 누어 주신 것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히 2:4).

이런 표적들과 기사들 및 여러 가지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은 주장이 아니라 증거이며 징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라 부른다. 물과 피를 증거라고 말한 요한의 이야기를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또다시 볼 수 있다. 여기서 물과 피는 증거였지만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았다.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증거들이다(행 14:17).

바울은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제의(Suggestion)나 계시를 보여 준다는 뜻이 아니다. 바울이 의미한 것이 무엇인지는 다음 성경 구절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아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흥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다같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말씀 나눔

“우리들의 리더쉽 (3): 주가 거느리시네! 왕상 19:1~12”

본문 속으로

1. 이세벨은 남편 아합왕에게서 무엇을 들었나요? (1절)

2.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 엄포를 놓자,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요? (3절)

3. 로뎀 나무 아래에 자던 엘리야를 천사가 어떻게 하나요? (5-7절)

4. 굴 속에 숨어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나요? (10절)

5.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11절)

교회와 가정을 위해

-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각 성도가 주일예배, 수요예배, 새벽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께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소서.
- 시작되는 QT반과 Book Club을 통하여 성경 말씀 반석 위에 믿음이 성장하는 소망 권속 되게 하소서.
- 1월 26일날 있을 제직 세미나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명예 지켜 사는 소망 권속 되게 하소서.
- 성도들의 가정과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구주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멀리 있는 자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소서.
연로한 부모님들을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늘 하늘 소망 가득안고 살아가게 하소서.
-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물 맨 동산처럼 물려주는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소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부의 영적 부흥이 있게 하소서. 어와나를 통해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함께 동역하며 섬겨줄 사역자들을 보내주소서.
- 담임목사님의 영육간을 지켜주시고, 가정 가운데 평안을 허락 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공동체 잘 이끌어가게 하소서.
- 모든 교역자들과 교회 리더십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몸 된 소망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세계를 위해

- 한국의 비행기 사고로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이들과, 캘리포니아의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과, 중동부의 한파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캘리포니아 산불이 속히 깨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 어지러운 한국의 상황과, 새롭게 출범하는 미 행정부를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스려 주소서.
- 열방에서 수고로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께서 맡겨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픈 교우들을 위해

- 안성실 권사님 허리수술 후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이창진 장로님 무릎수술 후 회복과 청력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오정일 집사님 무릎동맥 수술 후 재수술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Charles Biesen (김기홍 권사님) 심장 수술 후 회복중입니다
-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 하는 성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배를 섬기는 이들

④ 1/19

대표 기도 백형수 장로
교회 안내 원영철, EMILY 집사
번역/통역 김예람 자매, 김혜연 집사
애찬 담당 요르단 구역
교회 청소 칠레 구역 (1월)

④ 1/26

대표 기도 오귀록 장로
교회 안내 유우근 장로
번역/통역 이화님 자매, 원영철 집사
애찬 담당 독수리 구역
교회 청소 칠레 구역 (1월)

향기로운 예물

1/5, 1/12/2025

주일	1,405
십일조	8,280
감사	1,190
선교	20
구역선교	320
건축	70
주일학교/유스	0
첫열매	40
방송문서 헌금	100
특별헌금 (연금)	200
입금총액	\$11,625.00

교회행사

1/19 주

구역리더 기도회

1/26 주

제직 세미나

2/2 주

Q.T반 1일차

2/4 화

Book Club 1일차

2/9 주

권사 기도회

2/15 토

장로 기도회

말씀 나눔

“우리들의 리더쉽 (3): 주가 거느리시네! 왕상 19:1~12”

<생활 속으로>

1. 우리들의 리더쉽은, 언제나 나를 어루만져주시고 또 어루만져주고 계시는 아빠 아버지의 두 손 안에서, '주가 거느리시는 대로'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하여, '주께로 더 가까이' 힘을 내어 나아가는 리더쉽입니다. 행여 나는 실상을 바라보기보다는, 당장 조여오는 내 힘든 형편이 자꾸 더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말 한 마디에도 자꾸 휘둘리고 나 스스로가 절망의 수렁 속에 빠져들고 있는건 아닌지, 함께 점검해보세요.

2. 우리들의 리더쉽은, 절망 속에 보이진 않아도 주는 늘 '모든 선함으로 나를 지나가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결과를 굳게 믿으며 '주가 거느리시는 대로' 살아내는 리더쉽입니다. 혹 나 역시도 깊은 절망에 빠져 혼자서만 숨어있고 싶어하는 '관계 차단'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자기 열심'을,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타인 비난'의 모습이 있는건 아닌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이번주 기도구역

요르단 구역
 (전세환 장로 김은화 권사) 과
 설청호, 전경원 선교사님

이번주 기도가정

홍달표 집사님 가정

교회헌금 온라인

HopeSTL.org/online-donation

WELCOME WORSHIP DISCIPLESHIP

저희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1968년 세이트루이스 최초의 한인교회로 시작하여, 지금의 한인소망교회로 연합되었습니다. 본 교회는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 소속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한인소망교회에 새로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후 본당 지하 새가족실에서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식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배안내 & 교회소식

1. 함께하는 성경통독! 2025년 한해의 시작과 함께 성경통독을 해서 연말에 1독을 목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소망식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19	1/20	1/21	1/22	1/23	1/24	1/25
창 47-50	출 1-3	출 4-6	출 7-10	출 11-13	출 14-17	출 18-21

2. 기도함 - 기도제목을 작성하여 교회 로비 기도함에 넣으시면 담임목사님께서 기도합니다.

3. BOOK CLUB을 위한 팀 켈러 '기도' 책을 구입하기 원하시는 성도님은 박은실 권사님께 알려주세요. 책 가격은 \$20입니다.

BOOK CLUB 반 첫 시작은 2월 4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아가페홀에서 모입니다.

4. QT 반 첫 시작을 2월 2일 예배 후 1시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광고를 참조하세요)

5. 1월 26일 주일 예배 후 1시에 본당에서 제직 세미나로 모입니다.

원종훈 목사님께서 (시카고 그레이스 교회) 세미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6. 캘리포니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헌금을 모읍니다.

기간은 다음주 주일 까지입니다.

7. 구역리더기도회: 예배 후 1시에 아가페홀에서 모입니다.

<이번주 새벽예배 일정>

1/21 화	1/22 수	1/23 목	1/24 금	1/25 토
김성직 목사	김성직 목사	오정훈 목사	오정훈 목사	김성직 목사
요 6:41-59	요 6:60-71	요 7:1-13	요 7:14-24	요 7:25-36

기도회

예배를 위한 기도회

매주 주일 아침
10시 본당 지하
새가족실

장로기도회

2월 15일 토요일
새벽예배 후 아침 7시
본당 옆 회의실

권사기도회

2월 9일 주일
예배 후 1시에 본당

구역리더 기도회

1월 19일 주일
예배 후 1시에 본당

모집 광고 & Sign up

1. 2025년 첫 QT반을 모집합니다.

QT를 알고 싶으신 분들, 매일 QT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 🕒 2/2, 16, 23, 3/2
- ⌚ 주일 예배후 1시
- 📍 본당

2. 2025년 첫 Book Club (팀 켈러의 '기도')을 모집합니다.

신청하길 원하시는 성도님은 교회 입구 sign-up 게시판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 🕒 2/4, 11, 18, 25
- ⌚ 화요일 저녁 7시
- 📍 아가페홀

교우동정